

전남 여수시 주부들의 김치 제조실태, 준비하는 부식 가짓수 및 아침식사형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Kimchi Preparation, Number of Side Dish and
Breakfast Type of Housewives in the Yosu · Chonnam Area

여수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부교수 정복미 · 안창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승정자

Department of Food Science & Nutrition, Yos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Bok Mi Jung · Chang Bum Ahn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Chung Ja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

<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status of Kimchi preparation, number of side dish and breakfast type of some houses in Yosu, Chonnam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00 using a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monthly income of household was 1~2 million won (50.1%). The highest family composition was couple and children with 75.6% and the highest number of family member was 3~4 with 57.0%. The highest type of housing was an apartment with 67.1% while its ownership was, the highest in self-own with 69.9%. The 65.6% of respondents prepared Kimchi at home and the next was from the parent's home. The numbers of side dishes except Kimchi for each meal were 3~4(63.2%). The major food of breakfast was boiled rice(86.7%). With decreasing age and family

Corresponding Author: Bok-Mi Ju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 Nutrition, Yosu National University, 96-1 Dun Deok-Dong, Yosu, Chonnam, 550-749, Korea Tel: 82-61-659-3414 Fax: 82-61-659-3410 E-mail: jbm@yosu.ac.kr

numbers and increasing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the percent of boiled rice was lower whereas the percent of bread was higher.

주제어(Key Words): 여수(Yosu), 아침식사 형태(breakfast type), 반찬(side dish), 김치(Kimchi)

I. 서론

김치는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통식품(윤진영 외, 1985)으로 많은 국민들이 오랜 역사동안 주요 부식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김순동, 1995). 최근 김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김치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송영옥 외, 1999 ; 최선혜 외, 2001), 무기질 흡수증진(황인주 외, 1997), 면역강화(신경섭 외, 1998), 항 미생물활성(김선재 외, 1995), 항암성(박인철 외, 1998), 다이어트효과(백영호 외, 2001) 등 기능성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치가 우수한 생리기능성 식품이며, 한국의 전통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송영옥 등(1995)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김치의식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83%가 김치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김치를 섭취하는 양은 극소량이나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문혜진 등(1999)은 서울·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치 섭취실태 및 태도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60.4%가 좋아한다고 답하였으나 연령에 따라 학년이 낮아질수록 김치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초등학생들이 서구음식과 가공식품에 익숙해져 있어 김치를 먹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습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며, 식생활관리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어린이의 김치에 대한 인식 및 실제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김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집에서 직접 김치 담그는 과정을 보여주고, 부모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김치 섭취를 권유하는 등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김치공장의 등장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의 주부들은 김장을 직접 담그기 보다는 구입해서 먹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매스컴의 발표는 시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일상

식은 밥과 반찬으로 구성되는 주 부식 분리형 양식이 삼국시대 이후로 하루 세끼 정규식사의 기본형으로 정착되어 왔다(윤서석, 1991). 그러므로 단체급식에서는 김치 외 부식을 보통 3-4가지로 구성하고 있으나, 일반가정에서는 점차 식생활의 서구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침식사를 번거로운 한식위주에서 미래로 갈수록 간편한 양식위주의 식사와 더불어 부식의 가지 수도 줄어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위해서는 일상 식생활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끼에 약 10~20종의 식품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이성동 외, 1983). 이와 같이 김치섭취의 중요성과 더불어 가정에서 주부들이 준비하는 부식 가지 수 등의 관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의 김치제조 여부, 한끼의 부식 수와 아침식사 형태 등 각 가정에서의 식사시 필요한 부식에 대한 조사와 이와 관련되는 요인들과의 상관성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 가정에서의 식생활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미래의 식생활 향상과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본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중인 전 학생들(2, 3, 4학년 90명)이 참여하여,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부들의 가정을 임의로 방문하여 설문지 600부를 배부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총 600부를 회수하여 그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499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지역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설문내용을 보완하였다.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가정에서의 김치 제조 여부, 부식, 아침식사 형태 등 가정에서 식사시 필요한 주·부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조사자료의 통계분석

조사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주부의 연령, 학력, 가정의 총수입,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를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으며, 주부들의 연령은 40-49세가 3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가 34.9%를 차지하였다. 50세 이상은 84명으로 16.8%, 20-29세는 45명으로 9.0%를 나타내었다. 직장을 가진 주부는 221명으로 44.5%, 직장이 없는 주부는 276명으로 55.5%를 나타내었다. 주부들의 학력은 고졸이 53.0%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5.3%, 대졸이 21.7%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원-200만원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300만원이하가 22.8%, 100만원이하가 18.2%, 300만원이상이 8.9%를 나타내었다.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부와, 웃어른과 자녀구성으로 12.3%, 부부만 있는 경우가 8.3%, 부부와 웃어른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	%
Age	20-29	45	9.0
	30-39	174	34.9
	40-49	196	39.3
	≥ 50	84	16.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4	25.3
	High school	260	53.0
	College	107	21.7
Occupation	Have	221	44.5
	None	276	55.5
Monthly income	<1,000,000	88	18.2
	1,000,000-2,000,000	243	50.1
	2,000,000-3,000,000	110	22.8
	>3,000,000	44	8.9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41	8.3
	Husband, wife and children	376	75.6
	Husband, wife and parents	19	3.8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61	12.3
Numbers of family	2	45	9.1
	3-4	284	57.0
	≥ 5	169	33.9
Type of house	Apartment	334	67.1
	House	154	30.9
	Others	10	2.0
Type of possession	Own house	342	69.9
	The lease of a house	131	26.7
	Some lease, some rent	17	3.4

3.8%를 나타내었다. 가족 수는 3-4명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명 이상이 33.9%, 2명은 9.1%를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334명으로 67.1%, 주택은 154명으로 30.9%, 기타가 10명으로 2.0%를 나타내었으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6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세가 26.7%, 일부는 전세이고, 일부는 월세의 경우가 3.4%를 나타내었다.

2. 가정에서의 김치 제조여부

<Table 2>는 여수지역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

<Table 2> The status of Kimchi preparation in the house of subjects

N(%)

Variable	Group	Prepare	Purchase	Native home or the house of father-in-law	Complex	Total	χ^2 -value
Age	20-29	17(37.8)	3(6.7)	18(40.0)	7(15.5)	45(100.0)	95.94***
	30-39	79(45.4)	12(6.9)	48(27.6)	35(20.1)	174(100.0)	
	40-49	160(83.3)	7(3.6)	8(4.2)	17(8.9)	192(100.0)	
	≥50	69(83.1)	3(3.6)	5(6.0)	6(7.3)	83(1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9(89.3)	3(2.5)	3(2.5)	4(5.7)	122(100.0)	76.87***
	High school	170(66.1)	8(3.1)	47(18.3)	32(12.5)	257(100.0)	
	College	39(36.8)	14(13.2)	28(26.4)	25(23.6)	106(100.0)	
Occupation	Have	130(59.4)	16(7.3)	41(18.7)	32(14.6)	219(100.0)	9.97*
	None	195(71.5)	8(2.9)	38(13.9)	32(11.7)	273(100.0)	
Monthly income	<1,000,000	66(76.7)	6(7.0)	8(9.3)	6(7.0)	86(100.0)	29.85**
	1,000,000-2,000,000	162(67.2)	8(3.3)	43(17.9)	28(11.6)	241(100.0)	
	2,000,000-3,000,000	66(60.5)	4(3.7)	17(15.6)	22(20.2)	109(100.0)	
	>3,000,000	19(43.2)	7(15.9)	9(20.5)	9(20.5)	44(1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14(35.0)	6(15.0)	14(35.0)	6(15.0)	40(100.0)	40.84***
	Husband, wife and children	244(65.4)	13(3.5)	59(15.8)	57(15.3)	373(100.0)	
	Husband, wife and parents	15(79.0)	1(5.3)	3(15.7)	0(0.0)	19(100.0)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49(84.5)	4(6.9)	3(5.2)	2(3.5)	58(100.0)	
Numbers of family	2	17(37.8)	7(15.5)	15(33.3)	6(13.4)	45(100.0)	55.73***
	3-4	167(59.4)	12(4.3)	53(18.9)	49(17.4)	281(100.0)	
	≥5	140(83.8)	6(3.6)	11(6.6)	10(6.0)	167(100.0)	
Type of house	Apartment	190(57.2)	18(5.4)	70(21.1)	54(16.3)	332(100.0)	38.00***
	House	128(84.8)	6(4.0)	8(5.3)	9(5.9)	151(100.0)	
	Others	7(70.0)	0(0.0)	1(10.0)	2(20.0)	10(100.0)	
Type of possession	Own house	245(72.3)	20(5.9)	36(10.6)	38(11.2)	339(100.0)	45.51***
	The lease of a house	61(47.3)	2(1.6)	41(31.8)	25(19.3)	129(100.0)	
	Some lease, some rent	11(68.8)	2(12.5)	2(12.5)	1(6.3)	16(100.0)	
Total		318(65.6)	24(4.9)	79(16.3)	64(13.2)	485(100.0)	

* P<0.01 **P<0.001 ***P<0.0001

치제조 여부에 대한 결과로써 김치를 집에서 담그는 주부의 응답율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는다가 16.3%, 복합적(담고, 사먹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는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2%, 사 먹는다가 4.9%를 나타냈다. 이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에서 담그는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사먹는 비율은 감소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집에서 담그는 비율은 높았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거나 사먹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부들이 직장에 다니는 주부들에 비해 김치를 집에서 담그는 비율이 높았으며, 월수입이 많을수록 김치를 집에서 담그는 주부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가족구성과 가족수에서 핵가족일수록 담그는 비율은 낮고, 사먹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고, 대가족일수록 반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파트 거주 주부들은 주택거주 주부들보다 집에서 담그는 비율이 낮았으며, 사먹는 비율과 친

정이나 시택에서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경희(1999)는 부천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발효식품소비태도를 조사한 결과 주부의 직업이 없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확대가족일수록 전통 발효 식품을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영 등(1985)은 여성들의 나이별로 김치를 담귀 본 경험을 알아 본 결과 40세 이상은 응답자의 100%, 30대는 응답자의 91%, 20대는 31%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김치를 담귀 경험이 많은 것을 보고하였다. 이정주(1985)는 80년대 서울지역에서 연구한 결과 98.6%가 집에서 김치를 담귀한다고 하였고, 신민자 등(1991)과 김은실(1995)은 90년대 대상자의 96%가 김치를 집에서 담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역적인 차이가 약간 나지만 80년대에 비해 90년대, 2000년대로 갈수록 김치를 직접 집에서 담귀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중현 등(20)은 경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치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직접 담아 먹는다고 답하였으나,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김치를 직접 담아 먹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과거에 비해 미래로 갈수록 김치를 담아 먹는 가정의 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집에서 담아 먹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아 먹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라 사료된다.

3. 김치 외 반찬 가짓수

김치이의 평균적으로 집에서 먹는 한끼 반찬 가짓수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 대상 주부들이 준비하는 가족들이 먹는 김치 외에 한끼 반찬 가짓수는 3-4가지가 6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가지 이상이 27.4%, 1-2가지가 8.0% 순이었다.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반찬 가짓수가 많아지는 경향이었으며, 핵가족일수록 반찬 가짓수는 적었으며, 대가족일수록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경향이였다. 또한 소유형태에서 자가의 경우 전세보다 반찬 가짓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김치 외 반찬 가짓수는 월수입($P<0.05$),

주택의 소유형태($P<0.01$)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즉 월수입이 많을수록 반찬의 가짓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였으며, 주택의 소유형태에서는 자가인 경우 전세인 경우보다 반찬의 가짓수가 대체로 많은 경향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끼의 반찬 수는 이주희(2001)의 진주의 아파트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유영상(1980)은 서울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찬 수는 아침에 4-5가지, 점심에 2-3가지, 저녁에는 5-6가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장명숙 등(1984)은 영동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식사시 한끼 반찬의 수는 대상자의 57.8%가 김치 외 3-4가지를 준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2가지가 29.2%, 5-6가지가 12.2%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이 반찬 가짓수를 약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경자(1991)의 전북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김치를 포함한 1끼의 반찬 수는 4-5가지가 43.2%, 6-7가지가 33.8%, 8-9가지는 17.9%, 2-3가지는 5.1%로 나타나 많은 연구에서 지역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끼의 반찬 수는 김치를 제외하고 3-4가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4. 아침의 주식형태

<Table 4>는 아침에 주로 먹는 주식의 형태를 나타낸 결과로, 아침에 먹는 주식의 형태는 밥이 조사 대상자의 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밥, 죽, 떡, 빵을 복합적으로 먹는다는 응답율이 5.6%, 빵이 4.2%, 죽이 0.8%, 떡이 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밥 이외의 빵과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월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아침의 주식으로 밥을 섭취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빵을 섭취하는 비율은 증가되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침에 밥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빵을 섭취하거나 복합적으로 섭취한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월수입

<Table 3> The numbers of side dishes prepared by subjects

Variable	Group	One or two	Three or four	Five or more	Total	χ^2 -value
Age	20-29	7(15.9)	30(68.2)	7(15.9)	44(100.0)	8.69
	30-39	17(9.8)	112(64.4)	45(25.8)	174(100.0)	
	40-49	13(7.0)	117(62.9)	56(30.1)	186(100.0)	
	≥50	4(4.8)	53(63.1)	27(32.1)	84(1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10.0)	79(65.8)	29(24.2)	120(100.0)	1.76
	High school	19(7.5)	160(63.0)	75(29.5)	254(100.0)	
	College	10(9.5)	66(61.9)	30(28.6)	105(100.0)	
Occupation	Have	20(9.2)	137(62.8)	61(28.0)	218(100.0)	0.42
	None	21(7.8)	175(65.3)	72(26.9)	268(100.0)	
Monthly income	<1,000,000	11(12.9)	56(65.9)	18(21.2)	85(100.0)	13.13*
	1,000,000-2,000,000	17(7.1)	160(67.2)	61(25.6)	238(100.0)	
	2,000,000-3,000,000	7(6.5)	66(61.7)	34(31.8)	107(100.0)	
	>3,000,000	5(11.6)	19(44.2)	19(44.2)	43(1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7(17.5)	28(70.0)	5(12.5)	40(100.0)	11.59
	Husband, wife and children	30(8.1)	238(64.5)	101(27.4)	369(100.0)	
	Husband, wife and parents	0(0.0)	10(58.8)	7(41.2)	17(100.0)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3(5.2)	36(62.1)	19(32.8)	58(100.0)	
Numbers of family	2	7(15.9)	30(68.2)	7(15.9)	44(100.0)	7.73
	3-4	25(9.0)	176(63.3)	77(27.7)	278(100.0)	
	≥5	9(5.5)	105(63.6)	51(30.9)	165(100.0)	
Type of house	Apartment	28(8.5)	214(65.1)	87(26.4)	329(100.0)	0.87
	House	12(8.1)	91(61.5)	45(30.4)	148(100.0)	
	Others	1(10.0)	6(60.0)	3(30.0)	10(100.0)	
Type of possession	Own house	21(6.3)	204(60.9)	110(32.8)	335(100.0)	17.54**
	The lease of a house	17(13.3)	91(71.1)	20(15.6)	128(100.0)	
	Some lease, some rent	1(6.7)	11(73.3)	3(20.0)	15(100.0)	
Total		41(8.4)	311(63.9)	135(27.7)	487(100.0)	

*P<0.05 **P<0.01

이 낮을수록 아침에 밥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월수입이 높을수록 빵을 섭취하는 경향이었으며, 가족의 형태에서 핵가족일수록 빵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가족일수록 밥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수에서도 역시 가족수가 많을수록 밥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수가 적을수록 빵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였다. 아침의 주식형태는 연령(P<0.001), 교육수준(P<0.0001), 월수입(P<0.0001), 가족형태(P<0.05), 가족수(P<0.05)와 유의성을 나타냈다. 김은실(1995)은 강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주식형태를 조사한 결과

아침에는 밥과 빵, 점심에는 밥과 면류, 저녁에는 밥을 주로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현숙(1988)의 연구에서는 80년대 아침식사의 주된 음식은 밥이 93.9%, 빵이 4.2%, 기타 1.2%, 죽 0.7%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아침에 밥을 먹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안빈 등(1999)은 경기도 지역의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형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3%가 밥을 먹는다고 하였고, 빵은 18.3%, 시리얼이 2.8%로 본 연구에 비해 밥을 먹는 비율이 떨어졌으며 빵을 먹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는데 수도권지역의 근로자들은 본

<Table 4> The type of main dish at breakfast

Variable	Group	Rice cake	Gruel	Rice	Bread	Complex	Total	χ^2 -value
Age	20-29	35(79.6)	0(0.0)	0(0.0)	6(13.6)	3(6.8)	44(100.0)	36.70**
	30-39	141(83.9)	1(0.6)	1(0.6)	7(4.2)	18(10.7)	168(100.0)	
	40-49	177(94.7)	0(0.0)	1(0.5)	6(3.2)	3(1.6)	187(100.0)	
	≥50	73(90.1)	3(3.7)	0(0.0)	1(1.2)	4(4.9)	81(100.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18(98.3)	2(1.7)	0(0.0)	0(0.0)	0(0.0)	120(100.0)	44.87***
	High school	224(90.0)	2(0.8)	2(0.8)	8(3.2)	13(5.2)	249(100.0)	
	College	76(74.5)	0(0.0)	0(0.0)	12(11.8)	14(13.7)	102(100.0)	
Occupation	Have	184(88.0)	1(0.5)	0(0.0)	11(5.3)	13(6.2)	209(100.0)	2.83
	None	241(89.6)	2(0.7)	2(0.7)	9(3.4)	15(5.6)	269(100.0)	
Monthly income	<1,000,000	78(94.0)	2(2.4)	0(0.0)	2(2.4)	1(1.2)	86(100.0)	33.21***
	1,000,000-2,000,000	216(91.9)	2(0.9)	0(0.0)	7(3.0)	10(4.3)	235(100.0)	
	2,000,000-3,000,000	88(83.8)	0(0.0)	1(1.0)	8(7.6)	8(7.6)	105(100.0)	
	>3,000,000	31(72.1)	0(0.0)	1(2.3)	3(7.0)	8(18.6)	43(100.0)	
Family type	Husband and wife	27(69.2)	2(5.1)	0(0.0)	5(12.8)	5(12.8)	39(100.0)	27.51*
	Husband, wife and children	324(89.5)	1(0.3)	2(0.6)	14(3.9)	21(5.8)	362(100.0)	
	Husband, wife and parents	17(94.4)	0(0.0)	0(0.0)	1(5.6)	0(0.0)	18(100.0)	
	Husb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54(94.7)	1(1.8)	0(0.0)	0(0.0)	2(3.5)	57(100.0)	
Numbers of family	2	31(73.8)	2(4.8)	0(0.0)	5(11.9)	4(9.5)	42(100.0)	25.89*
	3-4	240(88.2)	1(0.4)	0(0.0)	12(4.4)	19(7.0)	272(100.0)	
	5-7	154(93.3)	1(0.6)	2(1.2)	3(1.8)	5(3.1)	165(100.0)	
Type of house	Apartment	277(86.3)	3(0.9)	1(0.3)	16(5.0)	24(7.5)	321(100.0)	13.10
	House	140(94.6)	1(0.7)	1(0.7)	4(2.7)	2(1.3)	148(100.0)	
	Others	8(80.0)	0(0.0)	0(0.0)	0(0.0)	2(20.0)	10(100.0)	
Type of possession	Own house	297(89.5)	4(1.2)	2(0.6)	15(4.5)	14(4.2)	332(100.0)	13.07
	The lease of a house	111(88.8)	0(0.0)	0(0.0)	4(3.2)	10(8.0)	125(100.0)	
	Some lease, some rent	9(69.2)	0(0.0)	0(0.0)	1(7.7)	3(23.1)	13(100.0)	
Total		417(88.7)	4(0.9)	2(0.4)	20(4.3)	27(5.7)	470(100.0)	

*P<0.05 **P<0.001 ***P<0.0001

연구에 비해 아침에 주식의 형태로 밥보다는 빵을 더 많이 섭취함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소도시에 속하는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가정에서의 김치제조 실태, 아침식사의 종류와 부식의 준비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수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

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가정에서의 김치의 제조 여부, 평소 섭취하는 반찬 가지 수, 아침식사의 형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부들의 연령은 40~49세가 39%로 가장 많았고, 조사 대상 주부들의 44.5%가 직장에 다녔으며, 학력은 고졸이 53%로 가장 높았다. 가정의 월수입은 100만원~200만원이하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고, 가족 수는 3~4명이 57%로 가장 높고,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7.1%,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 69.9%로 가장

높았다. 김치를 집에서 담근다는 주부의 응답률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는다가 16.3%, 복합적(담고, 사먹고, 친정이나 시댁에서 받는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2%, 사 먹는다가 4.9%를 나타냈다. 김치 외 반찬 가지 수는 3~4가지가 가장 많았고, 아침에 먹는 주식의 형태는 밥이 조사대상자의 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합적(밥, 죽, 떡, 빵)으로 먹는다는 응답률이 5.6%, 빵이 4.2%, 죽이 0.8%, 떡이 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밥 이외의 빵과 복합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월수입이 많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밥을 섭취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빵을 섭취하는 비율은 증가되었다. 이들 결과로 볼 때 중소도시인 여수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부들은 대부분의 연구와 같이 김치를 집에서 담귀 먹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정에서의 아침 식사도 주로 주식으로 밥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로 갈수록 김치산업의 활성화로 특히 대도시지역이나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김치를 구입해서 먹는 경향이 증가되는 추세로 예상되고 있으며,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식사는 양식으로 간편화되어 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여수지역의 주부들은 대체로 우리 전통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고경희(1999). 부천지역 주부의 식문화와 전통발효식품 소비태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1), 139-156.
- 김은실(1995). 강원 지역 농촌 주부들의 전통 식생활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1) - 식생활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조리과학회지*, 11(4), 342-351.
- 김선재, 박근형(1995). 식물성 김치재료추출물의 항미생물활성. *한국식품과학회지*, 27(2), 216-220.
- 김순동(1995). 김치산업의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생물산업*, 8(2), 2002-2013.
- 김종현, 박우포, 김정석, 박정희, 류재두, 이한기, 송영옥(2000). 경남지역 주민의 김치 섭취 실태 조사(II). *한국식문화학회지*, 15(2), 147-153.
- 문혜진, 이영미(1999). 서울 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김치 섭취 실태 및 태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1), 29-43.
- 박인철, 홍석일, 신경섭, 최태부, 채옥화(1998). 경구 투여된 김치 유산균 파쇄액이 쥐의 항암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물공학회지*, 13(4), 357-364.
- 백영호, 광정록, 김세종, 송영옥, 한성섭(2001). 운동 및 김치 보충제 섭취가 비만 여중생의 신체 조성 및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0(5), 906-913.
- 신경섭, 최태부, 정호권, 채옥화(1998). 경구 투여된 김치 유산균 파쇄액이 쥐의 면역활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물공학회지*, 13(4), 424-431.
- 신민자, 이영남, 김복남(1991). 전통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1), 71-82.
- 송영옥, 김명, 김은희, 문정원(1995). 어린이의 김치 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I) - 김치섭취에 대한 의식 및 섭취실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4(5), 765-770.
- 송영옥, 송영선, 권명자, 전진호(1999). 김치 섭취수준이 중년 남성의 혈중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8(5), 1144-1151.
- 안빈, 김상연(1999). 산업체 근로자들의 식 행동과 기호도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9(3), 336-344.
- 이경자(1991). 전북지역 주부들의 식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4), 403-411.
- 이성동 외 3인(1983). *최신 영양학*. 형설출판사
- 이정주(1985).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주희(2001). 진주지역 아파트 주부들의 식생활 관리실태 조사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6(5), 755-764.

- 유영상(1980). 식생활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1), 53-67.
- 윤서석(1991). 한국음식. 수확사.
- 윤진영, 이수성, 우종규(1985). 김치와 배추 기호성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한국원예학회지, 26(2), 122-126.
- 장명숙, 황재희(1984). 영동지역 주부들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지식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13(4), 389-396.
- 장현숙(1988). 도시 및 농촌거주 주부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15-30.
- 최선희, 김현주, 권명자, 백영호, 송영옥(2001). 김치 보충제가 건강한 성인의 혈중 지질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0(5), 913-921.
- 황인주, 오영주(1997). 김치의 섭취가 성인 남성의 철분영양상태 지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30(10), 1188-1195

(2002년 8월 30일 접수, 2003년 3월 18일 채택)